

한낮 햇볕보다 뜨거운 끼와 열정의 무대

광주·전남 청소년축제 성료
밴드·댄스 등 18개팀 경연
장관상 2팀, 교육감상 4팀
진로·진학 부스 상담 호응

청소년들이 발산하는 끼와 열정은 한여름 내리쬐는 햇볕보다 뜨거웠다. 광주·전남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축제인 '제8회 광주·전남 청소년축제'가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청소년축제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자원자들이 몰렸고, 각 부문별로 우수한 기량을 지닌 지역 청소년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실력을 뽐냈다. 특히 실용음악과 댄스부문에서는 우수한 실력을 갖춘 팀들이 잠재된 재능과 끼를 과감없이 발산하며 열띤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광주일보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청소년축제에는 지역 초·중·고교 학생으로 구성된 밴드(1개팀)·실용음악(7개팀)·댄스(10개팀) 등 공연예술 부문 18개 팀이 참가했다.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들을 펼쳤고, 무대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학 교수와 공연기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춤·노래 실력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 수상 2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최우수상 수상 4팀에게는 광주시·전남도교육감상이 주어졌다. 수상자(팀)는 ▲대상(교육부장관상)

‘양주’ ▲대상(교육부장관상) ‘한지애’ ▲최우수상(광주시교육감상) ‘KJN파워댄스’ ▲최우수상(광주시교육감상) ‘카타르시스’ ▲최우수상(전남도교육감상) ‘라이트스트리트’ ▲최우수상(전남도교육감상) ‘박희연’ 등이다. 이날 청소년축제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의 입시와 진로, 학교폭력 등 상담을 비롯해 길거리 농구대회, 축하 공연, 타로 카드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송원대학교는 별도의 홍보부스를 열고 축제 참가자는 물론, 축제장 주변 시민들과 만났다. 지역 고교생과 시민들에게 송원대 입학 전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지역 고교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부스를 운영했고, 광주동부경찰도 축제장에 학교

폭력 상담부스를 마련해 청소년들을 만났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금연 등 열성적인 상담으로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8회를 맞은 광주·전남 청소년축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초반 2회째 대회는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렸고, 3회부터는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공원 등에서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축제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교육부와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이 후원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2019청소년축제' 참가자들이 무대를 마무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학생 18개 팀이 참가해 밴드 공연, 댄스 등 갖고 닦은 실력들을 펼쳤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의약품 오남용 심각...약물중독 상승률 전국 2위

식욕억제제·수면제·해열제 등으로 인한 광주지역 약물중독 환자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

면 광주지역에서 수면제 등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4년 330명에서 지난해 459명으로 최근 5년 동안 3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2014년 441명→2018년 793명, 79.8% 증가)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번째로 높

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남은 584명에서 463명으로 20.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2014년 1만6755명에서 지난해 1만6471명으로 1.7% 줄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약물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를 연령대로 보면 40대(1만

진료받은 인원 5년 39% 늘어
전남 등 전국 평균 1.7% 줄어

3330명)가 가장 많았고 50대(1만1574명), 30대(1만429명), 20대(9088명) 순이었다. 5년간 증가율은 80대(19.5%), 10대(15.7%), 20대(14.1%), 60대(2.4%) 순으로 높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5 달뜨기 21:29
해질 19:17 달지기 08:56

당분간 무더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21/32	보성	구름많음	19/30
목포	구름많음	22/31	순천	구름많음	22/32
여수	구름많음	24/30	영광	구름많음	20/31
나주	구름많음	19/32	진도	구름많음	21/29
완도	구름많음	21/31	전주	구름많음	21/31
구례	구름많음	19/31	군산	구름많음	21/31
강진	구름많음	19/31	남원	구름많음	19/31
해남	구름많음	19/31	흑산도	구름많음	22/26
장성	구름많음	19/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1.5	북서~북	1.0~1.5

◇물때

	간조	만조
	09:42 21:45	04:31 16:36
여수	05:01 17:01	11:06 23:25

◇주간 날씨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3/32	24/31	24/31	23/33	23/31	23/31	23/31

◇생활지수

	경고
	매우 높음
	자외선
	보통

‘이달의 5·18민주유공자’에 故 조남일씨

서울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다 경찰에 붙잡혀 고초를 당한 고(故) 조남일(1957~1995·사진)씨가 ‘이달의 5·18민주유공자’에 선정됐다. 국립5·18민주유공자관리소는 “8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조남일 유공자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5·18 소식을 듣고 1980년 5월22일 광주 집



유언비어 유포 및 시위 계획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년을 복역했다. 5·18묘지관리소 관계자는 “조씨는 1987년6월항쟁에

도 참여하는 등 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며 “5·18민주유공자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널리 알려 5·18 정신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탈북민 모자 아사 관련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가 서울관악구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광주·전남 등 전국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보건복지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씨가 제대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대상은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된 가구 ▲월세·관리비가 3개월 이상 장기체납된 공동주택 가구 등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몰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제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